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③ - 반월성지(半月城址)



최 중 구
포천영유외 회장

사적 제403호로 지정된 포천시 군내면 구음리 산 5-1 소재 반월성지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11만6천305㎡ 규모로 석재로 축조했다.

반월산성이 위치한 구음리는 조선시대 포천현의 관아에 있던 곳으로 이 지역의 정치·경제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반월산성은 바로 이 구음리의 뒤편에 있는 반월산(일명 청성산, 283m)의 7부에서 9부 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 퇴각식 산성이다. 산성의 형태가 마치 반달과 같아 반월산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반월산의 동쪽과 서쪽은 협준한 산맥으로 차단되었고, 그 사이에 축성령에서 시작된 포천천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가면서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반월산은 이 분지의 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지가 되는 것이다.

인근에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반월산성은 공예에 의하여 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이 산성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승람』에도 산성이 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때는 폐성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誌)』, 『경성지(京城誌)』 등 후대의 문헌은 반월산성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1618년(광해군 10) 판관 이성구의 책임 아래 개축이 이루어져 1623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둘레가 1930(1937)척이고, 성내에는 2~3개의 우물 및 정령(鎭鎗), 삼대(三臺), 기우제단(祈雨祭壇), 성황사(城隍祠)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산성은 1994년에 포천시와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의하여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이미 보고서가 간행되었고, 1995년부터 단국대학교 사학과 학술조사단에 의하여 발굴 조사되었다.

반월산성은 둘레가 1천80m, 동서 490m, 남북 150m의 규모로 동서가 길쭉한 반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성곽 내에는 문지 2개소, 치성 4개소, 건물지 6개지, 북쪽의 장대지는 성내의 가장 높은 지역에 있다. 현재에도 남북 13.4m, 동서 30.1m의 장방형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서,북,동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포천일대와 반월산성이 전략적 요지로 인식



사적 제403호로 지정된 포천시 군내면 구음리 산 5-1 소재 반월성지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11만6천305㎡ 규모로 석재로 축조했다.

우물지 및 수구지 2개소, 장대지 및 망대지 2개소가 있다.

남문지는 남벽에서 서쪽으로 회절하는 지점에 설치되었다. 반월산의 서북편에서 서북벽을 따라 발달된 능선을 통하는 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원래 반월산성의 출입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북문지는 북벽 평탄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평탄대지에서 서북벽을 따라 동쪽으로 경사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지가 되는 것이다.

북문지는 북벽 평탄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평탄대지에서 서북벽을 따라 동쪽으로 경사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지가 되는 것이다.

북문지는 북벽 평탄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평탄대지에서 서북벽을 따라 동쪽으로 경사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지가 되는 것이다.

북문지는 북벽 평탄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평탄대지에서 서북벽을 따라 동쪽으로 경사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지가 되는 것이다.

북문지는 북벽 평탄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평탄대지에서 서북벽을 따라 동쪽으로 경사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지가 되는 것이다.

북쪽의 장대지는 성내의 가장 높은 지역에 있다. 현재에도 남북 13.4m, 동서 30.1m의 장방형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서,북,동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우물지는 2개소가 확인되었다. 1번 우물지는 현재 교통로가 개설되어 있는 남벽에 비교적 넓은 평탄 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대지 북쪽에 우물지가 있다. 우물은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약 2m정도이다. 6-7단의 석축은 수평을 유지하면서 막돌쌓기 방법으로 동글게 축조하였다.

2번 우물지는 현재 교통로로 이용되는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90m 지점에 위치한다. 우물의 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80cm, 높이 98cm이다. 6단의 석축을 동글게 쌓았으며 상면에는 토사가 덮여 있었다.

반월산성에서는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및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특히 기와가 많이 수습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1995년 발굴 조사시에 발견된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解空單)'이란 7자가 새겨진 명문기와는 문헌자료가 빈약한 고대사에서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주목된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볼 때, 반월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 성이 처음 축조된 것은 5세기 중반 경으로 생각되며 고구려, 신라를 거쳐 통일신라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개경이 수도가 됨으로써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어 폐성이 되었다가, 조선시대 1618년(광해군 10) 후금(後金)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개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월산성은 조선시대 서울에서 함흥으로 가는 대로상에 축조된 성곽이다. 이는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던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던지 꼭 지나가야 할 요충지인 것이다. 따라서 이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천 일대에 산재하는 여러 산성의 중심이 되는 성으로 파악된다. 포천 분지 일대에서 구음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고대부터 정치·경제의 중심지였음은 앞서 밝힌 바 있다. 고구려시대 포천은 마홀군(馬忽郡)으로 불리워졌다. 이것은 1995년 반월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시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解空單)'이란 7자의 명문기와가 발견됨으로써 확인되었다.

이 마홀군의 치소가 있던 것이 바로 반월산성이었다. 고대의 성은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중심지였다. 고구려는 반월산성을 마홀군의 치소로 삼아 포천일대는 물론, 현재의 양주 부근까지 통치력을 행사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지리지에 의하면, 양주도 한때 마홀이라 불렀던 것을 보아 고구려가 처음 한강 유역을 진출했을 때에는 양주도 마홀군에 포함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반월산성은 평화시에는 행정적인 치소로 사용되다가 전쟁시에는 주변의 여러 작은 성을 통괄하는 기능과 인근지역의 백성들을 인보시켜 농성전을 수행했을 것이다. 신라에서 포천지역을 점령한 이후에도, 반월산성은 한강 유역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2차 방어선을 준비함으로써 한강 유역을 고구려의 공세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당나라와 전쟁을 치를 때도 그대로 가동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당전쟁에서 신라가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한 매초성 전투도 이와 같은 신라의 전통적인 한강유역 방어체제에 당나라군이 무릎을 꿇은 것이라 하겠다. 반월산성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후금의 세력이 확대되자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성을 다시 수축하기도 했으며, 북쪽의 적으로부터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월산성이 가장 중요시 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시대를 달리하면서 도 반월산성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기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⑥

자치경찰제의 전제조건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의 목적 관점에서 볼 때 경찰작용은 오직 국가목적작용인 국가행정조직·외교·재정·군정의 여러 작용과 국가의 적극적인 공공의 복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복리행정과 구분된다. 즉 경찰작용은 직접 사회목적적이라는 점에서 국가목적작용과 구별된다.

또한 소극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작용이라는 점에서 같은 사회목적적 작용인 하나 직접적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목적작용과 구별되어 행정상 독자적인 작용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이 포함된다. 보안경찰이란 보통경찰기관의 소관사무와 같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종류의 행정작용에 부수되어 아니고 오직 경찰작용이 독립하여 행정의 일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통경찰·풍속경찰·해양경찰·소방경찰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협의의 행정경찰이란 행정영역별로 그 행정이 갖는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산림경찰·어업경찰·보건경찰·건축경찰·문화경찰·철도경찰 등이 그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제도적 의미에서 경찰이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이 필요한 것은 제도적 의미의 경찰이 위험방지업무 이외에 범규상 부여된 그 밖의 다른 행정활동, 예를 들면 미성년자 보호 등 복지활동·범죄수사 등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2조 4항과 5항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두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3항과 4항에는 치안과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두고 있다.

그리고 경찰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에 서 볼 때 경찰조직의 기본원리로는 경찰의 민주화·정치적 중립화·지방분권화 등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경찰조직의 기본원리는 앞으로 전개될 자치경찰제도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행정은 국가사회와 국민생활준립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며, 경찰의 활동은 국민생활과 그 기본적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성질의 것이므로 경찰의 조직과 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찰의 민주화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경찰권은 그것이 국가의 통치권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래 국민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상부의 권위로서 국민에 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점에서 비로소 권위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법은 그 제2장에 민주적 경찰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둘째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경찰이 권력행사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나 특수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정치의 권력구축과정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받아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불분당·공정중립을 유지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 영 민
포천경찰서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은 경찰작용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어서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으나 1991년에 와서야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발전되고 경찰위원회를 두어 비로소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법 제4조에서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경찰이 지향해야 할 규범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지방분권화이다. 경찰조직을 중앙집권화할 것인가 지방분권화할 것인가는 각국의 역사적·지리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오늘날 완전한 국가경찰만으로 구성된 나라도 드물며 지방 자치가 행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치경찰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조직에도 경찰의 지방분권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조직체계를 갖추어 줌으로써 당연한 국가안보상의 문제와 국제적인 범죄 등은 국가경찰체제로 하고, 지역사회의 치안문제는 자치경찰체제로 하여 경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호에 계속)

Advertisement for '60일간의 프랑스여행' (60 Days of France Travel) at Ains World. The ad features a collage of Parisian landmarks like the Eiffel Tower and Sacre-Coeur, and lists various activities and offers such as 'Paris Fashion Festival', 'Paris Photo Contest', and 'Paris Dinner Show'.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ins World and a list of sponsors like Paris Visite and Mr. Pizza.